

서귀포 성산 해변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시 추가 확인'

서귀포 성산을 해변서 검출...도, 차단 방역 주변 가금농가 12호 60만여마리 이동 제한

제주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관계 당국이 차단 방역에 나섰다. 이달 초 검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 해안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H5N1형'으로, 지난 15일 제주

시 한림읍 소재 상대저수지에서 검출된 AI와 같은 유형이다.

도는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인근 해안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주변 가금농가 12호에서 사육 중인 63만여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한 상태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12월4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변 철새도래지(구좌, 한경, 성산, 안덕)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동행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한림 상대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방역대내 가금농가 28곳에 대한 임상관찰과 정밀검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마지막 가을 보내는 시민들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전북 진안군 메타세콰이어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물류센터서 스마트폰 등 2억 상당 빼돌린 20대 직원 징역...법원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있어"

물류센터에 보관돼있던 고가의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B(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물류센터에 보관돼있는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미관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1억3000여만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송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품의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수개월에 걸쳐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회사가 A, B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 실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으로부터 2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반 가격인 1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시스

'153km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선고

4년 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법원이 과속하다 추돌 사망사고를 낸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유치TG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외제

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90km로 제한된 구간에서 153km로 과속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형택기자

장성 터널서 화물차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입건

사고 직후 차량에 불...소방당국, 출동 20분에 진화

장성경찰서는 19일 만취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장성군 진원면 1번 국도 위 못재터널(장성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40대 남성 B씨의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갓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꺼졌다.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들쭉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